

보험 설계사 '男風' 거세다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보험업계에 남성 설계사 진출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단순한 보험상품 판매보다 고객에게 종합적인 재무컨설팅 제공을 위해 전문직 남성위주로 설계사를 충원하면서 남성 설계사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남성 보험설계사(생보사 기준)는 전국적으로 2만6천396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20%를 기록했다. 남성 설계사 비중은 2002년 9.1%에 불과했으나 5년만에 2배이상 늘어 설계사 5명중 1명꼴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17개 국내·외 생보사의 181개 점포에 근무하는 설계사 4천835명 가운데 남성은 651명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했다. 광주지역의 남성 설계사 비율은 전국 평균(16.3%)보다는 2.9%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처럼 남성 설계사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원인은 생보사들이 주력상품을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재무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남성위주로 설계사를 증원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컨설팅 비중 높아져 5년새 비중 9%→20% 외국계는 남성이 70~80%

더구나 광주지역 외국계 생보사만 하더라도 남성 설계사 비중이 P사가 90%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I사가 70~80%, M사가 50%를 넘을 정도로 외국사 보험사들이 전문적인 재무설계 능력을 갖춘 남성 설계사 채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성 설계사 비중이 증가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월평균 모집액과 소득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계사들의 평균 모집액은

2천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도 8.1% 늘어 생보사에 근무하는 남성 설계사의 경우 488만원으로 여성 설계사의 327만원보다 49.2% 높았다. 외국계 생보사의 남성 설계사 월 소득은 592만원으로 국내 생보사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의 이직률은 여전히 5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의 35.3%에 불과했고 특히 27.7%는 1년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전에는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아줌마 설계사가 많았지만 요즘은 인적 네트워크 외에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맞춤형 재무설계에 중심을 두다보니 남성 비율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속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휴가 시즌 맞물려 장기투쟁 불투명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23일부터 현대차 등 완성차 4사의 산별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파업 13일째로 접어들었으나 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시각차가 현저해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랜드 사태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완성차 4사 사용자들이 산별교섭 참여를 거부하면서 전국 185개 사업장(조합원 8만6천967명)에서 하루 6시간씩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18~20일 하루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완성차 4사 사용자들은 금속노조와 산별교섭을 벌일 경우 다시 지부교섭도 벌여야 하는 등 '이중교섭'의 문제점을 들어 교섭참여 거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지부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금속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재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지만,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게되는 다음주까지 파업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흥익저축은행 고액 예금자에 1인당 5천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영업정지중인 목포 흥익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해 이날부터 사고저축은행인 예아름저축은행을 통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예아름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흥익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20일 예보가 100% 출자한 예아름저축은행으로 자산·부채 계약이전명령을 내렸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흥익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목포2호광장지점, 광주월산동지점을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양부 장관 오징어 판촉

최근 오징어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23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시청역에서 시민들에게 오징어 가공식품류를 나눠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7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수산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대 오징어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인다. /연합뉴스

최근 오징어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23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시청역에서 시민들에게 오징어 가공식품류를 나눠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7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수산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대 오징어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인다. /연합뉴스

이마트 농축산물 수매 1조원 넘을 듯

국내 최대의 대형 할인매장인 신세계 이마트가 올해 전국 각지에서 수매하는 농축산물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3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산지에서 수매한 농축산물 매출액은 모두 5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마트의 지난해 산지 수매액은 상반기가 48.4%, 하반기가 51.6%로, 하반기에 좀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산지 수매액은 최대 1조1천억원 이상, 적어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같은 수매금액은 웬만한 일 반 대기업의 연간 매출과 맞먹는 규모로, 실제 판매가는 1조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는 지난해 전체 산지 수매금액보다 2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마트의 산지 수매금액은 2005년 8천650억원, 작년 9천8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전국 산지에서 매입한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가 3천2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도 1천960억원, 충청도 1천580억원, 제주도 1천38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목포조선 선수금 지급보증

화물선 3척 수주 성공

광주은행이 지역 견전 조선업체가 수주한 선박에 대한 선수금 지급보증을 통해 선박 건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3일 목포조선공업(주)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최근 선수금 지급보증(RG)방식을 통해 목포조선공업에 200억원을 대출해줘 수주한 선박을 무사히 건조할 수 있었다는 것. 선수금 지급보증이란 선주사가 선박 발주금액 가운데 일부를 미리 조산사에 지불하는 선수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조선공업은 유럽 국가로부터 6천500t급 화물선 3척을 수주했으나 은행권으로부터 RG를 받지 못해 자칫 수주한 선박계약이 무산될 뻔했으나 광주은행의 RG로 선박 수주에 성공하게 됐다. 목포조선공업 관계자는 "현재 수주액이 18척에 2천9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것은 광주은행이 선수금 지급보증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럽 선주사들도 한국의 지역은행이 시중은행도 힘든 RG업무에 나선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학교·종교 등 공익법인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변칙 증여 방지

국세청(청장 정근표)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증여와 상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문화·학교·종교·의료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조기조사 선정 대상은 확대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은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면서 불성실신고 및 혐의에 대한 조사강화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의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증식과 불법세습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을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 운용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위반 사실을 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는 법인으로 학교·종교·복지·학술·장학·문화 등 2만7천여개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비율은 미미하며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내려간 0.8%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종대기자 jitee@



"따뜻한 세정 펴세요"

정병춘(오른쪽 두번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1~25일)을 맞아 23일 전주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에게 따뜻한 세정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